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중학생의 영어 요청화행 분석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양 효 정

중학생의 영어 요청화행 분석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양 효 정

인 준 서

양효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학습자가 언어지식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가와 함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많은 언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행의 실현에 있어서 영어 학습자들이 해당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화행능력의 정도와 특징을 알아야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영어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위해서 이들의 화행 능력을 진단해 보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초급수준의 학습자들이 어떠한 요청화행을 구현하는지를 이들의 요청화행전략을 중심으로 밝혀내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래서 이들이 영어 교육의 목적인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과 ‘문화의 이해와 교류’에 맞게 사회언어학적 지식이 잘 학습되었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중학생들의 화용적 지도 방안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담화완성형 시험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요청화행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의 대상이 된 중학생들은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진 않아도 언어 구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주 행위 전략을 선호하는 유형이 영어모국어 화자와 비슷했던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조건언급의 전략의 분포가 가장 높긴 했어도 영어 모국어 화자에 비해 분포의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써 언어적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화용적 지식은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생들은 영어 모국어 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요청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관점의 선택에 있어서 청자중심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규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국어의 간접현상으로 인해 오류가 출현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요청화행이 가지는 직접적인 전략의 성향은 중학생들의 요청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며, 한국어의 언어체계가 전이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 해줘.’, ‘~ 해주세요.’의 영향을 받아 명령문의 형태가 나타나고 ‘~좀’의 영향으로 ‘please’가 나타나서 명령문과 ‘please’를 결합한 형태가 공손한 표현으로써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 것이 직접 요청의 빈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학생들의 요청화행이 모국어의 전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보조수단의 분석에서 ‘사과’ 전략이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었는데, 모국어의 전이는 그것이 간접현상이 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오류를 출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습 지도자와 학습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수업과 영어교재의 편찬에 반영하여 이들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준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영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선행연구	3

II. 이론적 배경

2.1 화행이론	6
2.2 요청화행	7
2.3 요청화행의 간접성	8
2.4 요청전략	9
2.4.1 요청의 주행위	10
2.4.2 요청의 보조수단	14
2.4.3 요청의 관점	15

III. 연구의 실제

3.1 연구대상	17
3.2 연구내용 및 측정도구	17
3.3 자료의 분석 및 논의	
3.3.1 공손표현에 대한 인식	20
3.3.2 주 행위 전략	22
3.3.3 보조수단	31
3.3.4 관점	36
3.3.5 상황	42

IV. 결론 및 제언53

참고문헌59

ABSTRACT62

부 록

<부록1> 설문지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제사회가 개방화되고 정보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영어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어교육은 말을 먼저 가르치지 못하고 초보단계부터 문자를 통해 영어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너무 치중하여 실생활에서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외국어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사전달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영어교육은 세계화에 대비하기보다는 문법에 치우친 입시위주의 교육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언어의 4가지 기능의 성취를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영어교육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문화 이해와 교류’이다. 일상 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다.

균형 있고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Hymes(1972) 이래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그 의견이 분분하나 공통적으로 언어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Hymes(1972)에 의하면 의사소통능력이란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규칙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Canale(1983)의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4가지 하위범주에는 사회·언어적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Bachman(1990)은 의사소통능력을 간단하게 언어 능력이라고 부르고 이를 조직적 능력과 화용적 능력으로 나누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적합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학습자가 언어지식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가와 함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어 모국어 화자들도 영어의 발음 혹은 문법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화행상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매우 무례하다고 판단한다고 한다. (Wolfson, 1983, 재인용)

이러한 점 때문에 화행의 실현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해당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화행능력의 정도와 특징을 알아야 무엇이 부족한 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한 화용적 능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화행연구는 주로 비교적 목표어에 대한 학습기간이 길고 높은 수준의 영어실력을 겸비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언어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에 대한 화행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영어 학습을 해나가는 초기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영어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위해 영어학습자의 화행능력을 진단해 보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그들의 화행능력을 고찰해보는 것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요청화행을 화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초급수준의 학습자들인 중학생들이 어떠한 요청화행을 구현하는지를 이들의 요청화행전략을 중심으로 밝혀내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의 영어 공손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영어요청화행이 한국어 요청화행과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겠다. 그래서 영어 교육의 목적인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의 이해와 교류에 맞게 사회·언어학적 지식이 잘 학습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중학생들의 화용적 지도 방안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선행연구

이제까지 한국인 영어 사용자들의 화행을 화용론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o(1995)는 미국 영어와 한국어의 요청화행의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하여 두 언어에서의 요청화행의 구현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문화 프로젝트의 연구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편으론 이들 연구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3가지의 관점인 사회·언어적, 화용·언어적, 사회·화용적 관점에서 두 언어 화자의 요청 화행을 조사하였다. 화용·언어적 영역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요청화행은 미국인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담화 방략으로 실현되고 있었다고 한다. 요청표현의 관점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의 요청화행이 미국인들에 비하여 보다 청자 지향적이었다. 완화의 양상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보조적 완화 수단을 사용하고 있

다. 그는 두 집단 간의 차이와 대부분은 범주적 차이라기보다는 해당 범주의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정병권(2001)은 영어의 유창성이 비교적 높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인 영어 사용자들의 요청화행에 나타난 공손전략과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영어 모국어 화자에 비해 한국인 영어 사용자들은 전략적 다양성이 적고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은 사회 문화적 변인에 따른 공손 전략과 간접성과 공손 정도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수민(2007)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표현을 분석하였다. Blum-Kulka 외(1989)가 제시한 요청의 관점과 요청의 요소의 하나인 보조 장치의 사용 빈도와 종류를 조사하고 각 교과서별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 요청 표현이 교과서 5종에서 각각 회수, 제공방식, 보조 장치 활용 여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일부 대화문에서는 격식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대화문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교과서 대화문이 화행 지도를 위해 적절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김유리(2006)는 영어 요청화행과 반응 분석을 중3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근거전략 외의 보조 수단 사용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과서에 좀 더 많은 보조수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관점의 대부분이 청자중심의 관점이었다며 교과서 대화문과 듣기 지문에 화자중심의 관점이 좀 더 높은 비율로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포괄과 비인칭을 포함한 관점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향이(2006)는 요청화행의 공손성 습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서법조동사 지식과 서법조동사가 활용된 요청 화행의 공손성 표현 지식 수준과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요청 화행의 공손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맥락 및 상황요인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 정도도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서법조동사 지식이 요청 화행 공손성 지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한다. 그리고 서법조동사와 요청화행 공손성지식간에 미미하지만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정성현(2006)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요청실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응답 길이, 화행전략의 사용, 내적수식과 외적 수식의 사용, 어휘 등의 사용에서 상황에 따른 사회적 요인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화행실현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중급 단계 이하의 학습자들의 부족한 언어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 화용론적 능력이 있으며 언어적 지식과 화행 능력은 서로 상보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중급단계의 학습자들이 상황에 따른 사회적 요인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용론적 능력은 아직 충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을 고 수준 학습자와 저 수준 학습자로 확대시키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화행이론

언어사용에 대한 일반이론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온 것이 화행이론이다. 화행의 기초가 되는 개념의 습득은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며 언어 화용론에서 화행은 화용이론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발화자가 말할 때 행하는 발화 행위에 대한 연구인 화행은 그 현대적 연구가 Austin(1962)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언어는 단순히 진술을 하는 것 말고도 더욱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발화는 참 아니면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두 가지 견해를 확실히 한다. 첫째, 그는 모든 문장이 진술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즉, 문장의 의미는 다양하며 명령, 제안, 감탄 등의 의미를 전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장의 형태가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진술의 기능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속이나 명명 혹은 경고등과 같은 경우에도 평서문은 사용된다. 그는 이렇게 문장들의 발화가 단순히 진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서 일종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발화를 수행발화라고 하였다.

Austin(1962)은 화자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동시에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점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의미를 분리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화행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발화 행위는 일정한 뜻과 지시를 가진 문장의 발화이다. 둘째, 발화수반 행위는 한 문장을 발화하면서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의해 진술, 제의, 약속 등을 하는 것이다. 셋째, 발화효과 행위는 문장을 발화하여 화자 측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이 영향은

발화의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물건을 사러 가서 당신이 친구에게 ‘I have no money.’ 라는 평서문과 ‘Can you lend me some money?’ 라는 의문문을 발화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서 발화 행위는 각각의 발화가 평서문, 의문문으로써 가지고 있는 어의적 의미 자체를 말한다. 앞의 두 문장은 비록 평서문, 의문문으로 각각 그 문장의 형태는 다르지만, 두 발화의 발화수반 행위는 ‘돈을 빌려 달라’ 는 요청으로 동일하다. 발화효과 행위는 위 발화를 들은 청자가 요청을 수락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요청을 거절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발화수반 행위는 알려주고, 명령하고, 요청하고, 경고하는 행위와 같이 어떤 수행력을 지닌 발화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화행이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이런 종류의 행위를 뜻하게 되었다.

2.2 요청화행

요청화행은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발화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화자에게 유리한 어떤 일을 청자가 하도록 기대하는 화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요청은 청자에게는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요청을 무턱대고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대화자 상호간의 공통적인 전제가 있어야 한다. Austin(1962)은 모든 발화가 본래 문자적 의미에 더하여 그 이면에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언어행위의 이러한 특정한 측면을 그는 발화의 발화수반력이라고 부른다. 발화수반력은 발화수반 행위를 수행할 때 언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전달의미는 어휘에는 나

타나 있지 않은 의미로서 단순한 문자적 의미 이면에 내포된 화자의 의도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언어 행위가 특정한 발화 수반력을 갖는다고 말해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것을 적절성 조건이라고 하였다.

Searle(1969)은 Austin(1962)의 적절성 조건을 바탕으로 요청의 발화수반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예비조건은 청자는 행위 A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성실조건은 화자는 청자가 행위 A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명제내용조건은 화자는 청자가 미래 행위 A를 행할 것을 서술한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필수조건은 해당 발화는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행위A를 행하도록 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는 것을 말한다. 즉, 요청화행은 청자가 앞으로 행할 수 있는 미래 행위이고, 청자가 행위 A를 할 수 있다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며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행위A를 행하도록 하는 시도로 여겨지는 것이다.

2.3 요청화행의 간접성

특정 문장 형태와 화행과는 전형적인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서문은 단언이나 서술을, 의문문은 질문을, 그리고 명령문은 명령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관계는 상황에 따른 추론에 의해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상대에게 ‘Could you pass me the salt?’ 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발화함으로써 기대하는 기능은 단순히 상대가 소금을 건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소금이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고 청자는 소금에 더 가까이 있는 식사 중의 상황이라면, 이것의

현 상황에서의 기능은 소금을 건네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요청화행은 관례적으로 간접적으로 실행되는데 이것은 언어학적인 공손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Searle(1975)은 요청화행과 같은 지령 발화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주된 동기를 공손으로 보았다. Levinson(1983, 재인용)은 대부분의 요청의 용법은 간접적인 반면에 명령문은 지령이나 요청을 위해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비슷한 견지에서 Thomas(1996, 재인용)는 영어에서는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I invite you.’ 와 같은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의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명령문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영어에서 선호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요청화행의 간접성이 강할수록 보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eech(1983)는 요청 화행의 간접성이 강할수록 보다 공손한 표현으로 여겨진다고 하며, 이는 간접성이 청자의 선택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발화 수반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요청표현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맥락에 따라 요청의 간접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그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2.4 요청전략

Blum-Kulka로 대표되는 비교-문화 화행실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자들은 요청 화행과 사과화행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코딩 매뉴얼을 제시했

다.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는 요청을 하는데 일어나는 일련의 발화가 환기소(alerters), 주 행위(head act), 보조수단(supportive moves)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환기소는 실제 요청에 앞서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애칭, 직위 등을 불러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 행위는 다른 요소들과는 독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청의 핵심화행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연속적인 발화행위에서 요청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의미한다. 보조수단은 핵심 화행의 앞이나 뒤에서 요청화행의 발화 수반력을 완화 또는 강화시킨다. 이것은 요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청화행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John,/ get me a beer, please./ I'm terribly thirsty.

위의 제시된 예에서 'John' 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환기소이다. 'get me a beer, please.' 는 맥주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의 표현으로 다른 발화행위와 연결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요청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주 행위에 해당된다. 'I'm terribly thirsty.' 는 내가 굉장히 목이 마르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맥주를 가져다 줘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여 요청화행이 설득력이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2.4.1 요청의 주 행위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는 요청의 주 행위를 전략

의 간접성의 정도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하였다. 다음 단계로 갈수록 간접성은 높아지게 된다.

① 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명령문, 부정사 형태, 생략된 문장 구조 등과 같이 발화의 문법적인 법을 통하여 요청의 의도를 나타낸다.

예) Clean up the room.

The menu, please.

No smoking in the classroom.

② 명시적 수행동사 표현(explicit performative): 수행동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직접적으로 요청의 발화 수반력을 지닌 동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예) I am asking you not to park the car here.

I request you to attend the annual meeting.

③ 약화된 수행동사 표현(hedged performative): 발화 수반력을 지닌 동사를 사용하되, 조동사나 다른 동사를 붙여서 발화력의 언급이 삽입되어 나타나도록 하여 자신의 요청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I should ask you to move your car.

I have to ask you to clean the kitchen right now.

I would like you to give your lecture a week earlier.

④ 의무 진술(obligation statement): 발화 수반 의도가 어의적 의미에서 직접 추론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숙제를 해야 해.” 라는 말은 숙제

를 하라고 직접 요청하지 않고 ‘~ 해야한다.’ 는 당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무를 표시하는 문장이다. 화자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화자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한다는 형식을 취하여 요청이 보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 You'll have to/must/should/ought to clean your room.

⑤ 소망 진술(want statement): 요청행위가 수행되었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대신에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요구가 명령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예) I'd like to borrow your notes for a while.

I want you to move your car.

⑥ 제안성 문형(suggestory formula):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제안형의 정형화된 표현을 이용한 것이다.

예) How about joining the basketball team?

Why don't you go shopping with me?

Let's play a game.

⑦ 예비조건의 언급(query preparatory):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예비적 조건들인 의지, 능력,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를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Would you mind moving your car?

Can/Could/Would you lend me some money?

May I come after 11?

⑧ 강한 암시(strong hints): 발화의 의도가 어의적 의미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의도된 발화 행위의 실행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주로 관계가 있다. 요청의 실현화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예비조건의 언급’ 과 비슷하지만, ‘강한 암시’ 는 위에서 언급된 양식화된 언어형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이 필요하다.

예) (집에 태워주기를 바랄 때)

Will you be going home now?

(청자의 강의노트를 빌려달라고 할 때)

I wasn't at the lecture yesterday.

⑨ 약한 암시(mild hints): 발화의 어의적 의미가 발화 의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암시와의 차이점은 화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행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표현 방법이 사용되므로 청자는 상황맥락과 배경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문을 닫아 달라고 할 때)

It's very cold here.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는 위의 9단계 전략 유형을 3단계의 전략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①법에 의한 도출, ②명시적 수행동사 표현, ③약화된 수행동사 표현, ④의무 진술, ⑤소망 진술 요청화행은 직접 요청전략(direct strategies)이다. 다음 ⑥제안성 문형과 ⑦예비조건의 언급은 간접 요청전략(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이다. 마지막으로 ⑧강한 암시와 ⑨약한 암시는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non-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이다.

2.4.2 요청의 보조수단

보조수단은 주 행위와는 별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앞이나 뒤에서 주 행위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며 그 역할에 따라 완화장치와 강화장치로 나뉜다. 다양한 대화자들 간에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것이 완화장치이고 상대방과 힘의 차이가 많거나 사회적 연대감이 적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강화장치이다.

다음과 같은 완화장치들은 요청의 발화 수반력을 완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① 예비(preparator): 요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청자를 준비시킨다.

예)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② 속박(pre-commitment): 청자를 속박함으로써 거부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예) Will you do me a favor?

Are you busy?

③ 근거(grounder): 요청을 하는 이유 또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예) I missed class yesterday, could I . . . ?

④ 해제(disarmer): 어떠한 잠재적 거절의 가능성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예) I know you don't like lending out your notes, could you make an exception this time?

⑤ 보상약속(promise of reward): 요청수락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이 이행될 경우 보답을 약속한다.

예) Could you. . .? I'll buy the book.

⑥ 부담 완화(Imposition minimizer): 요청이 청자에게 부여하는 부담의 정도를 약화시킨다.

예) Could you. . .? I'll return the book immediately.

다음과 같은 강화장치들은 요청의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① 모욕(insult): 청자에게 부여하는 부담을 증가시키고자 주 행위 앞에 모욕적 표현을 위치시킨다.

예) You old cat, don't talk any more.

② 위협(threat): 요청이 수락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를 가지고 청자를 협박한다. 주로 조건문의 형식을 지닌다.

예) Move that cat if you don't want a ticket!

③ 도의화(moralizing): 요청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덕적 격언을 언급한다.

예) Better than sorry, you know, so study hard from now on.

2.4.3 요청의 관점

요청을 할 때 관점에 따라서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Blum-Kulka(1989)는 요청에 있어 관점의 선택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았다. 요청은 본래 부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의 선택은 요청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발화에서 청자를 행위자로서 지명하기를 피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감의 정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화자가 주 행위를 선택할 때 청자의 역할보다는 화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청자의 부담감을 없애준다는 것이며 다음의 4가지 관점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화자중심(speaker oriented): 화자의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 일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I'를 사용한다.

예) Can I borrow your note?

② 청자 중심(hearer oriented): 청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예) Could you lend me your notes please?

③ 포괄(inclusive self oriented): 화자 자신을 포함시킨 포괄적인 의미인 'we'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에게 요청이 주는 부담을 덜 가중시킬 수 있다.

예) Can we start cleaning now?

④ 비인칭(impersonal): 요청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people, they, one, it 등을 사용한다.

예) It needs to be cleaned.

Ⅲ. 연구의 실제

3.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 30명(남학생 16명, 여학생 14명), 2학년 61명(남학생 32명, 여학생 29명), 3학년 44명(남학생 24명, 여학생 20명), 전체 135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청화행의 자료를 얻기 위해 사설학원에서 담화완성형 시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구대상 학생들 모두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기간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약 1달여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첫째로 기본정보를 표시하고, 둘째로 담화완성형 시험문항들로 각 상황별 요청에 대한 발화를 적도록 구성하였다. 상황별 요청발화는 되도록 직접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2학년 중에서 기본정보에만 응답하고 상황별 요청 답안은 기재하지 않은 남학생이 한명, 요청답안은 작성하지 않고 한국어 요청답안만 작성한 남학생이 한명, 반대로 영어요청답안만 작성한 남학생이 두 명 있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1학년이 5명, 2학년은 13명, 3학년은 3명이었다.

3.2 연구 내용 및 측정 도구

설문지는 개인정보란과 요청표현란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는 연구대상자들의 학교, 학년, 반, 이름, 성별, 영어권 국가에서의 체류여부, 학교성적, 영어 공손표현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부록참조)

다음으로 요청표현란은 담화완성형 시험의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배경상황, 대화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와 지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각각의 7가지 상황에 가장 알맞게 요청하는 말을 써 넣도록 하였다. 길이에 관계없이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한 후 직접 말하듯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으며 한국어로 기술한 상황에는 한국어로, 영어로 기술한 상황에는 영어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몇 가지 예로써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에 대한 것이다.

Situation 1(상황1)

당신은 기차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_____

You are late for a train. So you ask your close friend to lend you his bike. You ask him. You say to your close friend: _____

Situation 2(상황2)

당신은 많은 물건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서 문을 열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 근처에는 어떤 성인 남자가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_____

You are carrying a lot of things. You can't open the door

yourself. There's a man standing near the door. You ask him.

You say to him: _____

Situation 3(상황3)

당신이 버스 안에서 신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때 옆 좌석에 앉은 40대 아주머니는 그 신문이 읽고 싶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_____

You are on a bus. You have finished reading your newspaper. The woman(40's) next to you wants to have a look at it. What does she ask you? **He/She** says: _____

Situation 4(상황4)

당신은 인터넷을 하는 중입니다. 당신의 엄마는 당신에게 숙제먼저 하라고 말하려 합니다. 엄마는 당신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_____

You are searching the internet. Your mom asks you to do your homework first. **She** says: _____

제시된 상황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였으며 모두 7가지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각 상황의 화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상황별 화제

상황	화제
상황1 (bike)	친한 친구에게 자전거 빌리기
상황2 (door)	어른에게 문 열어 달라고 요청하기
상황3 (newspaper)	아주머니가 학생에게 신문 빌리기
상황4 (homework)	엄마가 아들/딸에게 숙제하라고 요청하기
상황5 (letter)	친하지 않은 같은반 친구에게 편지 검토 요청하기
상황6 (bags)	이웃집 아저씨에게 짐 들어주기를 요청하기
상황7 (dinner)	이성 친구에게 같이 저녁식사하자고 요청하기

3.3 자료의 분석 및 논의

3.3.1 공손표현에 대한 인식

먼저 학생들의 영어 공손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어에 공손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1학년은 16명이 ‘그렇다’, 11명이 ‘아니다’, 2명이 ‘잘 모르겠다’에 답했다. 2학년은 41명이 ‘그렇다’, 12명이 ‘아니다’, 7명이 ‘잘 모르겠다’에 답했다. 3학년은 33명이 ‘그렇다’, 4명이 ‘아니다’, 5명이 ‘잘 모르겠다’에 답했다. 그리고 1, 2학년은 1명씩,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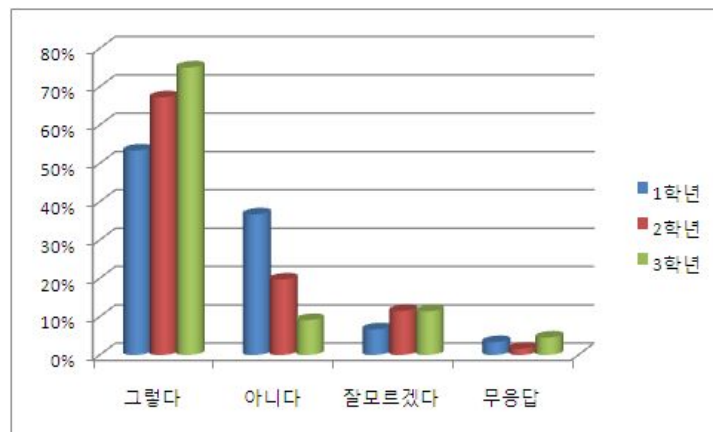
은 두 명이 어느 것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표 2> 공손 표현 인식에 대한 백분율(빈도수)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계
1학년	53.3%(16)	36.7%(11)	6.7%(2)	3.3%(1)	100%(30)
2학년	67.2%(41)	19.7%(12)	11.5%(7)	1.6%(1)	100%(61)
3학년	75.0%(33)	9.1%(4)	11.4%(5)	4.5%(2)	100%(44)
전체	66.7%(90)	20.0%(27)	10.4%(14)	3.0%(4)	100%(135)

전체 응답자 중 66.7%의 학생들이 영어에 공손표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20%의 학생들이 영어에 공손표현이 없다고 답했으며, 10.4%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손 표현 인식의 분포를 학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학년별 공손표현 인식 분포



학년별 공손표현의 인지 정도는 1학년 53.3%, 2학년 67.2%, 3학년 75%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공손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손 표현이 없다고 답한 학생들은 1학년 36.7%, 2학년 19.7%, 3학년 9.1%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공손표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집된 학생들의 요청화행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주 행위 전략, 보조수단, 관점, 상황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3.3.2 주 행위 전략

중학교 학생들이 요청을 할 때에 주 행위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전략별로 사용된 횟수를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가 제시한 주행위의 9단계 전략 유형과 3단계의 전략 유형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으며, 그들의 전략들 중 법에 의한 도출은 명령문의 형태로만 나타났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명령문’으로 표기하였고, 강한암시와 약한암시는 ‘암시’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응답을 빈칸으로 남겨놓았거나 해당 언어 지식의 부족으로 오류를 나타내어 전략을 알 수 없는 경우인 ‘기타’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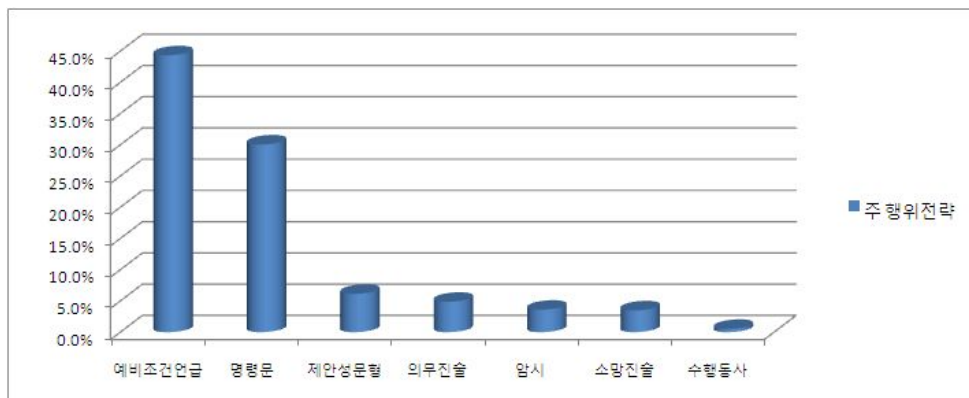
전체 중학생들이 요청화행을 수행할 때에 사용한 주 행위 전략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략의 분포에서 ‘기타’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과는 큰 연관이 없으므로 전략의 분포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볼 때에는 제외시키고 살펴보겠다.

<표 3> 주 행위 전략의 분포

구분	명령문	수행 동사	의무 진술	소망 진술	제안성 문형	예비조건 언급	암시	기타	계
빈도수	284	5	46	33	58	419	34	66	945
백분율	30.1%	0.5%	4.9%	3.5%	6.1%	44.3%	3.6%	7%	100%

전체 중학생들의 요청전략은 예비조건언급(44.3%) > 명령문(30.1%) > 제안성 문형(6.1%) > 의무진술(4.9%) > 암시(3.6%) > 소망진술(3.5%) > 수행동사(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주 행위 전략의 분포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조건언급(44.3%)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명령문(30.1%)이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위의 전략을 3단계 전략 유형으로 살펴보면, 간접 요청전략이 50.4%, 직접 요

청전략이 39%,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이 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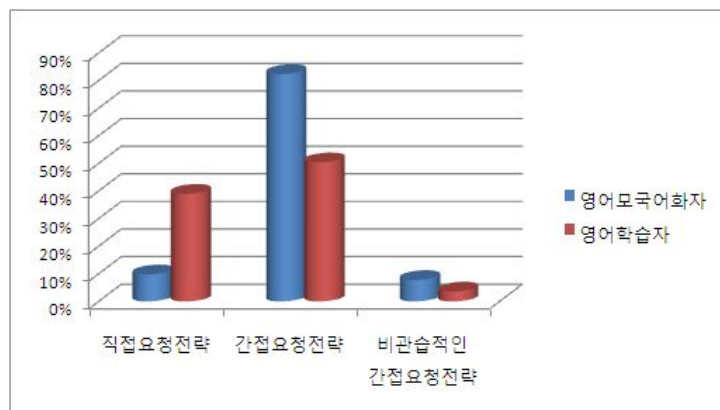
Blum-Kulka and House(1989)가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와 지위를 고려한 5가지 상황에서의 요청 전략을 분석하였을 때를 살펴보면, 전체 상황에 따른 평균 3단계 전략 유형의 분포는 간접 요청전략이 82.4%, 직접 요청전략이 9.8%,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이 7.8%였다.

영어를 학습해 나가는 중간언어의 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이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요청 양상에 어느 정도로 근접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주 행위 전략의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표 4> 영어 모국어 화자와 영어학습자의 주 행위 전략 비교

구분	직접 요청전략	간접 요청전략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
영어 모국어 화자	9.8%	82.4%	7.8%
영어 학습자	39%	50.4%	3.6%

[그림 3] 영어 모국어 화자와 영어학습자의 주 행위 전략 비교



이 연구의 결과와 영어 학습자인 한국 중학생들의 요청전략을 비교해본다면, 우선 영어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요청전략 분포가 간접 요청전략 > 직접 요청전략 >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의 순으로 같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들이 간접 요청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영어 모국어 화자의 간접 요청전략이 82.4%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중학생들의 간접 요청전략은 50.4%인 점과 영어 모국어 화자의 직접 요청전략이 9.8%에 불과한 반면에 중학생들의 직접 요청전략은 39%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다.

영어 모국어 화자의 직접 요청이 가족이나 허물없이 아주 친한 친구사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된 것과는 다르게, 중학생들의 직접 요청은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직접 요청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이 영어에서는 발화의 간접성의 정도에 따라 공손함을 표현하고 직접 요청의 경우는 아주 친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규범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중학생들의 직접 요청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첫째 원인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이유로 중학생들이 목표어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가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모국어에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경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말 요청에서 우리는 흔히 ‘~좀 해주세요.’의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한국말에서는 ‘~하세요.’가 아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손한 표현으로 요청을 한 것이 되지만 이것이 그대로 영어로 나타날 경우 직접요청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로 공손을 표현하는 언어체계가 영어를 사용할 때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o(1995)의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하여 두 언어에서의 요청화행의 구현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담화 설문 및 상황 평가 설문을 미국과 한국의 현지 대학생으로 구성된 실험집단에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것은 대조화용론의 연구 방법론에 따라 분석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요청화행은 미국인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담화 방략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직접성의 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국인들의 요청표현은 화용적 수단보다는 경어체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인들의 요청표현은 상대적으로 간접성 수준이라는 화용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학생들의 요청화행은 ‘please’ 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어로 요청할 때 ‘문 좀 열어주세요.’ 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좀’ 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부탁이나 요청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표현인 ‘~좀’ 의 형태를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명령문에 단순히 ‘please’ 를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라고 여기고 이런 표현을 사회적 거리가 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에게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중학생들은 아직 영어를 학습해나가는 중간언어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목표어에 대한 언어체계에 대한 지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국어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목표어에 전이되어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한국어 요청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전략의 경향이 영어로 요청할 때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 중학생 중 모두 21명의 중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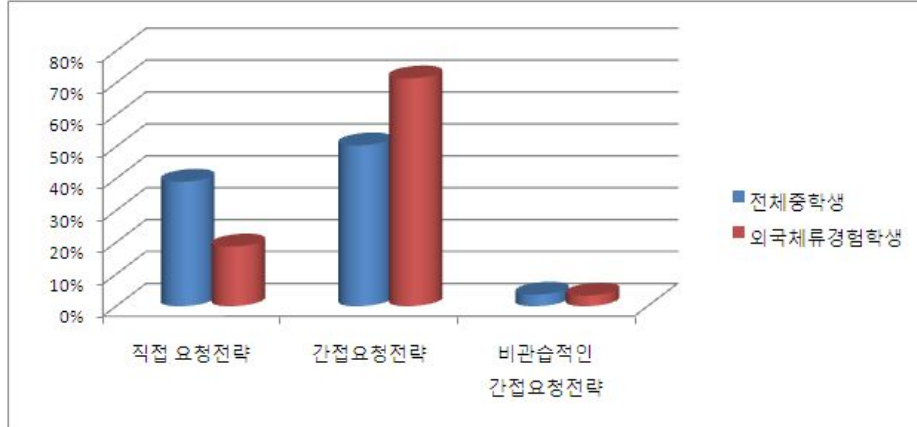
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체류기간이 몇 일간 혹은 몇 달 정도인 학생들은 제외하고 1년에서 많게는 10년간 체류경험이 있는 13명의 학생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5> 외국 체류 경험자의 주 행위 전략의 분포

구분	명령문	수행 동사	의무 진술	소망 진술	제안성 문형	예비조건 언급	암시	기타	계
빈도	12	0	4	1	1	64	3	6	91
수 백분 율	13.2%	0.0%	4.4%	1.1%	1.1%	70.3%	3.3%	6.6%	100%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의 분포는 예비조건언급(70.3%) > 명령문(13.2%) > 의무진술(4.4%) > 암시(3.3%) > 소망진술(1.1%), 제안성문형(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전략을 3단계 전략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간접 요청전략이 71.4%, 직접 요청전략이 18.7%,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이 3.3%로 나타났다.

[그림 4] 전체학생과 외국체류학생의 주 행위 전략



전체학생들과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을 비교해보았다. 간접 요청전략은 50.4%에서 71%로 높아지고 직접 요청전략은 39%에서 18.7%로 낮아짐으로써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요청화행의 주 행위 전략의 분포를 학년별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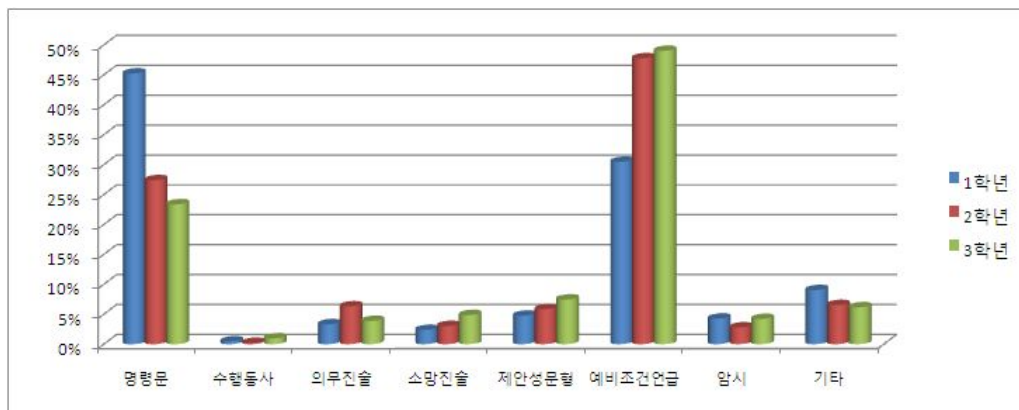
<표 6> 학년별 주 행위 전략의 빈도수

구분	명령문	수행동사	의무진술	소망진술	제안성문형	예비조건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95	1	7	5	10	64	9	19	210
2학년	117	1	27	13	25	204	12	28	427
3학년	72	3	12	15	23	151	13	19	308

<표 7> 학년별 주 행위 전략의 백분율

구분	명령문	수행동사	의무진술	소망진술	제안성문형	예비조건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45.2%	0.5%	3.3%	2.4%	4.8%	30.5%	4.3%	9.0%	100%
2학년	27.4%	0.2%	6.3%	3.0%	5.9%	47.8%	2.8%	6.6%	100%
3학년	23.4%	1.0%	3.9%	4.9%	7.5%	49.0%	4.2%	6.2%	100%

[그림 5] 학년별 주 행위 전략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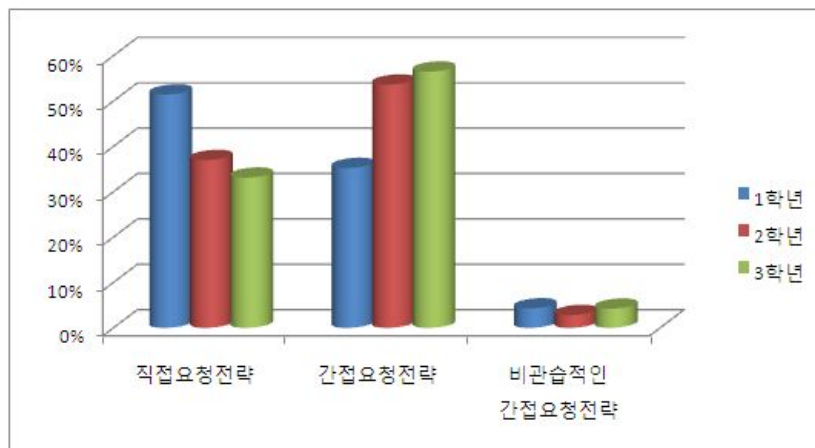
<표 6>, <표 7>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전체 중학생의 주 행위 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년별 주 행위 전략에서도 명령문과 예비조건언급의 분포가 가장 두드러진다. 하지만 각 학년마다 요청화행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비조건언급이 3학년(49.0%) > 2학년(47.8%) > 1학년(30.5%)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명령문은 1학년(45.2%) > 2학년(27.4%) > 3학년(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1학년은 명령문(45.2%)의 분포가 예비조건언급(30.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2학년은 예비조건언급(47.8%)의 분포가 명령문(27.4%)보다 높게 나타났고 3학년 또한 예비조건언급(49.0%)의 분포가 명령문(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예비조건언급의 전략의 빈도가 더 높아지고 명령문의 전략의 빈도는 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전략을 3단계 전략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보다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8> 학년별 3단계 전략 유형의 분포

구분	직접 요청전략	간접 요청전략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
1학년	51.4%	35.2%	4.3%
2학년	37.0%	53.6%	2.8%
3학년	33.1%	56.5%	4.2%

[그림 6] 학년별 3단계 전략 유형의 분포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 요청전략이 1학년(51.4%) > 2학년(37%) > 3학년(33.1%)의 순으로 나타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접 요청전략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접 요청전략은 1학년(35.2%) > 2학년(53.6%) > 3학년(56.5%)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교적 학년이 높은 학생들의 요청전략이 영어 모국어 화자의 요청전략에 학년이 낮은 학생들 보다 더 비슷하게 다가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학습의 양도 늘어나 문장 구사력도 함께 높아져서 ‘Can/May/Will~?’ , ‘Could/Would~?’ 의 쓰임이 더 많아지게 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3.3 보조수단

주 행위의 앞과 뒤에서 요청의 발화 수반력을 부가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부조 수단이 학생들의 응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학생들의 요청 화행 중 16.1%의 응답에서 보조수단이 나타났다. 한편, 영어권국가에서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요청화행 응답 수 91회 중 24회의 요청응답에서 보조수단이 나타나 26.4%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학생들의 요청화행이 16.1%에 그친 것은 아직 중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학습을 해나가는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조수단을 구사하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표 9> 전체 보조수단의 분포

구분	보조수단이 나타난 응답 수	전체 학생들의 요청사항 응답 수
빈도수	152	945
백분율	16.1%	100%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의 보조수단의 전략은 완화 장치로 예비, 속박, 근거, 해제, 보상약속, 부담완화가 있으며 강화장치로 모욕, 위협, 도의화가 있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들의 틀을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요청 사항을 분석하는 중에 이 틀에 속하지 않는 보조수단의 경향이 있었기에 이것을 ‘사과’ 라고 임의로 정하여 전략에 추가하였다.

<표 10> 보조수단 전략의 분포

구분	예비	속박	근거	해제	보상 약속	부담 완화	사과	모 욕	위협	도의 화
빈도 수	4	55	52	0	7	0	32	0	2	0
백분 율	2.6%	36.2%	34.2%	0%	4.6%	0%	21.1%	0%	1.3%	0%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수단은 속박(36.2%) > 근거(34.2%) > 사과(21.1%) > 보상약속 (4.6%) > 예비(2.6%) > 위협(1.3%)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요청할 때에 보조수단의 전략으로 해제, 부담완화,

모욕, 도의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화장치는 위협이 2회 나타나는 것에서 그치면서 보조수단의 대부분의 경우가 완화장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보조수단 전략의 분포



속박의 경우 가장 많은 빈도수(55)를 보이며 36.2%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상황3에서 나타난 보조수단의 전략의 빈도수 25 중 24회가 속박에 해당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의 발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들을 살펴보면, 상황2에서는 ‘Could you do me a favor?’, 상황3에서 ‘If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newspaper,~’, ‘If you have read it all,~’, ‘If you finish reading your newspaper,~’ 등의 표현들이 나타났다. 상황5에서는 ‘Could you give me a hand?’, ‘Are you busy?’, ‘Do you have time?’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상황7에서는 ‘Do you have time tomorrow evening?’, ‘Are you free tomorrow evening?’ 등의 표현이 나타났다.

근거는 속박 못지않은 빈도수(52)를 보이며 34.2%의 분포를 보였다. 7가지 상황들 중 가장 많은 보조수단의 빈도수(34)를 기록한 상황1에서 근거가 30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들로 상황1에서 ‘~because I'm late.’, ‘~because I'm late for a train.’ 등으로 나타났다. 상황2에서 ‘~because I can't open the door’ 등으로 나타났다. 상황6에서는 ‘This bags are too heavy for me, so~’ 등의 형태가 나타났다.

사과는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의 보조수단의 전략들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추가시킨 보조수단 전략이다. 속박과 수단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32)를 보이며 21.1%의 분포를 보였다. 이것의 특징은 요청의 주 행위에 앞서서 사과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예로 상황2, 상황5, 상황6에서 ‘I'm sorry but~’, ‘I'm so sorry but~’, ‘I'm very sorry but~’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한국말로 작성한 요청 응답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같은 대상일 경우엔 ‘미안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상일 경우엔 ‘죄송하지만...’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인들이 보통 요청을 하기에 앞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다. 이것은 화자의 요청으로 인해 상대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을 미리 사과하는 것으로 사과의 말을 요청하는 말 앞에 붙임으로써 요청을 할 때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이것은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의 보조수단의 전략들에 속하지 않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영어 모국어자의 전략에는 아주 미미한 빈도로 나타났거나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청을 하기에 앞서서 사과하는 표현이 중학생들에게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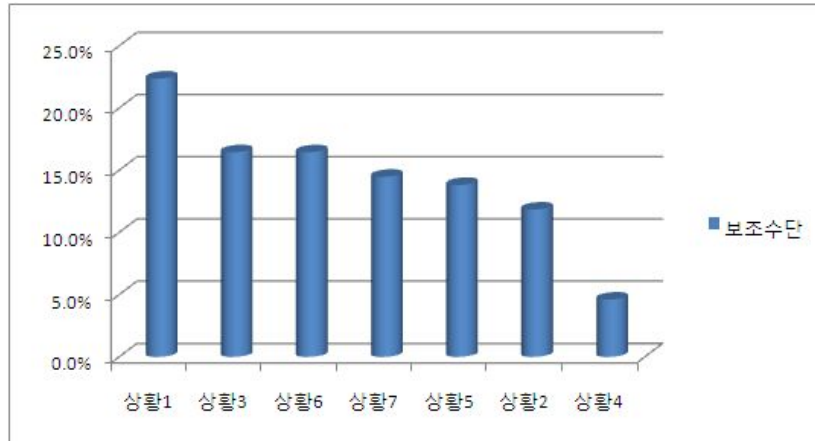
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과하는 전략은 한국어 요청표현에 나타나는 특징이 영어 요청표현에도 전이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상약속(7), 예비(4), 위협(2)은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적게 나타났다. 보상약속의 경우는 상황4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숙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 you can search the Internet.’ 와 같은 보상을 약속하는 말이 나타났다. 상황5에서는 ‘I’ll buy you an ice cream.’ 와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 예비는 상황5에서 ‘I wrote a letter in English and I heard that you are good at English so I came here to ask you for a help.’ 의 형태로 나타났다. 위협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엄마가 자녀에게 요청할 때인 상황4에서 ‘You have 15 minutes left.’ , ‘If you don't, I’ll kill you.’ 의 형태로 나타났다.

<표 11> 상황별 보조수단의 분포

구분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상황7	계
빈도수	34	18	25	7	21	25	22	152
백분율	22.4%	11.8%	16.4%	4.6%	13.8%	16.4%	14.5%	100%

[그림 8] 상황별 보조수단의 분포



상황별로 보조수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황1(22.4%) > 상황3, 상황6(16.4%) > 상황7(14.5%) > 상황5(13.8%) > 상황2(11.8%) > 상황4(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리는 상황1에서 보조수단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주머니가 학생에게 신문 빌리는 상황인 상황3, 이웃집 아저씨에게 짐 들어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인 상황6에서 보조수단이 많이 나타났다. 엄마가 아들에게 숙제하라고 요청하는 상황4에서 보조수단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가 같고 가까운 사이인 친한 친구에게 요청하는 상황1에서 보조수단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학생들은 동등한 입장이면서 가까운 상대에게 더 쉽게 보조수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3.4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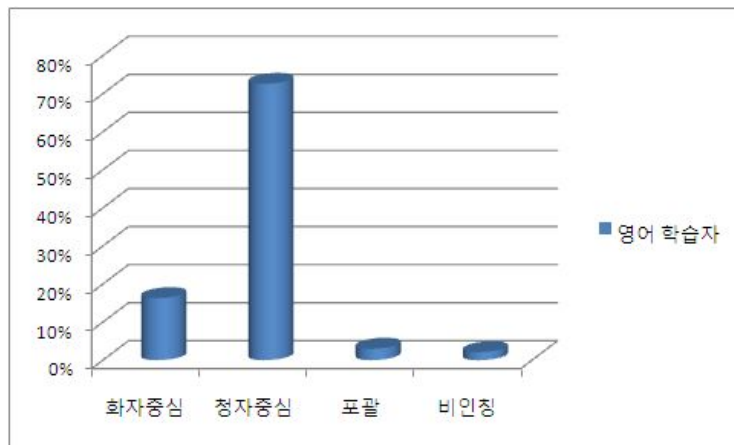
요청을 할 때 화자의 입장을 강조하느냐 청자의 입장을 강조하느냐에 따

라 청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감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청자중심의 발화 보다는 화자중심의 발화가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주 행위를 선택할 때 학생들의 요청의 관점이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Blum-Kulka(1989)가 제시한 관점의 틀을 바탕으로 학년별 요청의 관점 분포와 전체 학생들의 요청의 관점을 나타낸 표이다.

<표 12> 전체 학생들의 관점의 분포

구분	화자중심	청자중심	포괄	비인칭	기타	계
전체	16.3%	72.6%	3.0%	2.1%	6.0%	100%

[그림 9] 전체 학생들의 관점의 분포



전체 학생들의 관점의 분포는 청자중심(72.6%) > 화자중심(16.3%) > 포괄(3.0%) > 비인칭(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청의 관점이 다른 관점들에 비해서 청자중심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관점은 청자중심(75.8%) > 화자중심(13.2%) > 포괄(1.1%), 비인칭(1.1%)의 분포를 보였다. 이것을 전체 학생들의 관점의 분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자중심은 약간 높고 화자중심은 약간 낮게 나오므로써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요청표현의 관점에 있어서 Ko(1995)가 영어와 한국어의 요청 화행을 대조 화용론의 연구 방법론을 따라 연구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의 요청화행은 미국인들에 비하여 보다 청자 지향적이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통해 중학생들의 요청의 관점이 청자 중심에 많이 편중되는 이유에는 모국어의 전이가 작용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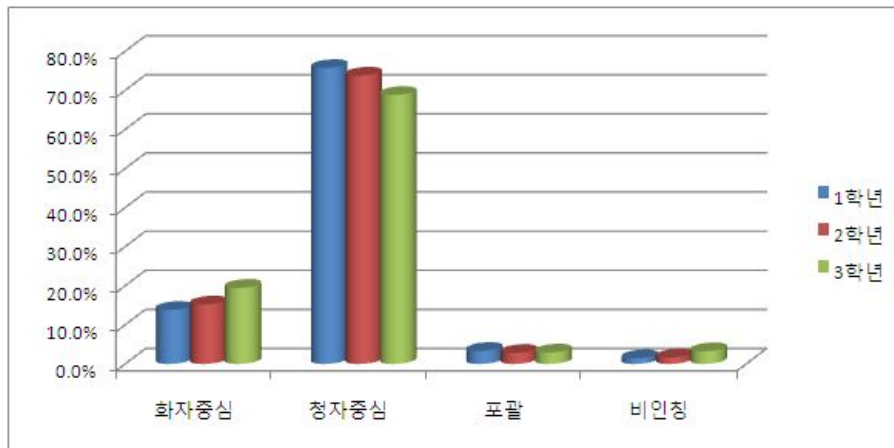
중학생들은 청자중심이 화자중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어로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무례하게 비추어질 경우가 많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영어로 요청을 할 때 그들의 관점의 선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관점의 선택에 있어서 생기는 영향을 알려주고 청자중심으로 요청하는 것은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어 자칫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다음은 각 학년별로 관점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표 13〉 학년별 관점의 분포

구분	화자중심	청자중심	포괄	비인칭	기타	계
1학년	13.8%	75.7%	3.3%	1.4%	5.7%	100%
2학년	15.2%	73.8%	2.8%	1.6%	6.6%	100%
3학년	19.5%	68.8%	2.9%	3.2%	5.5%	100%

[그림 10] 학년별 관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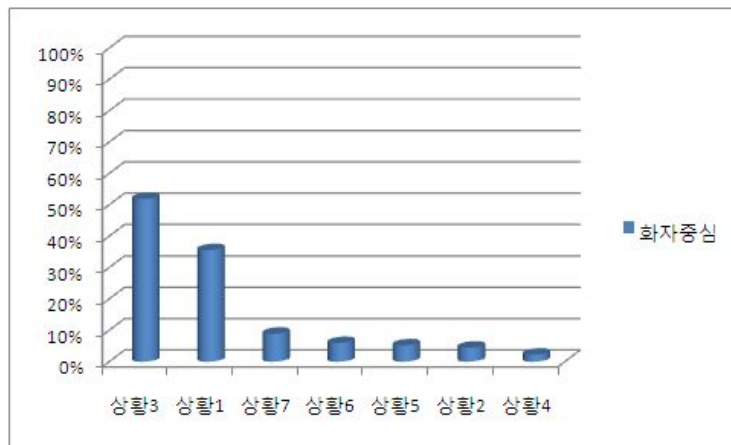
학년별 관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화자중심의 경우 3학년(19.5%) > 2학년(15.2%) > 1학년(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자중심의 경우 1학년(75.7%) > 2학년(73.8%) > 3학년(6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화자중심의 경향은 높아지고, 반면에 청자중심의 경향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황별로 관점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4> 상황별 관점의 분포

구분	화자중심	청자중심	포괄	비인칭	기타	계
상황1	35.6%	60.7%	0.0%	1.5%	2.2%	100%
상황2	4.4%	93.3%	0.0%	0.0%	2.2%	100%
상황3	51.9%	43.7%	0.0%	1.5%	3.0%	100%
상황4	2.2%	88.1%	0.7%	2.2%	6.7%	100%
상황5	5.2%	83.7%	0.0%	2.2%	8.9%	100%
상황6	5.9%	85.2%	0.0%	0.7%	8.1%	100%
상황7	8.9%	53.3%	20.0%	6.7%	1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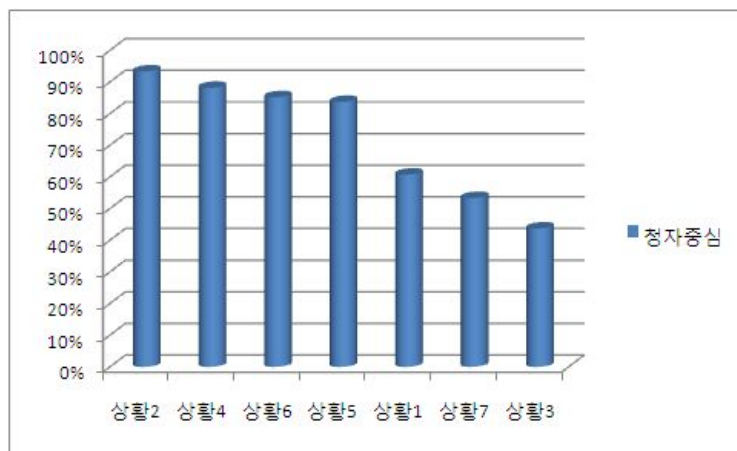
[그림 11] 상황별 화자중심의 분포



상황별로 관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화자중심의 경우 상황3(51.9%) > 상황1(35.6%) > 상황7(8.9%) > 상황6(5.9%) > 상황5(5.2%) > 상황2(4.4%) > 상황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주머니가 신문을 빌리려고

요청하는 말을 할 때 응답자에게 어떻게 요청할지를 예상하여 답하는 상황 3에서 화자중심의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응답자가 친한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리는 요청하는 말을 할 때 화자중심의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12] 상황별 청자중심의 분포



청자중심의 경우 상황2(93.3%) > 상황4(88.1%) > 상황6(85.2%) > 상황5(83.7%) > 상황1(60.7%) > 상황7(53.3%) > 상황3(4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어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쓰는 상황2에서 청자중심의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황2가 사회적 거리가 매우 멀고 사회적 거리가 자신보다 높은 상대에게 하는 요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상대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상황보다도 더 화자중심의 경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가장 청자중심의 요청을 하는 오류를 보였다.

전체 학생들의 관점의 분포에서 청자중심의 분포가 매우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각 상황들 또한 모두 청자중심이 화자중심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에 상황3은 7가지 상황들 중 유일하게 화자중심(51.9%)이 청자중심(43.7%)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국어로는 ‘신문 좀 볼 수 있을까?’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영어로는 ‘Can/May I read your newspaper?’와 ‘Could/Would I read your newspaper?’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다른 상황에서는 청자중심에 집중되다가 이렇게 상황3만이 유일하게 화자중심이 청자중심보다 높게 나온 것은 상황3이 화자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라는 상황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황3이 기본적으로 청자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화자가 무언가 행할 것에 대한 가능성을 구하는 요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Can I ~?’의 형태의 요청이 많아져서 다른 요청상황들에서는 청자중심이 화자중심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반대의 경향이 상황3에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황별로 사용된 주 행위 전략 분석에 들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상황3은 주 행위 전략 중 예비 조건언급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Can I ~?’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3.3.5 상황

학생들이 응답한 7가지 상황들은 배경상황과 사회적 거리가 다르게 설정되었다. 주 행위 요청전략이 사회적 거리와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상황별로 사용된 주 행위 전략을 분석하였다.

〈표 15〉 상황별 사회적 거리와 지위

상황	화자 - 청자	사회적 거리	사회적 지위
상황1	응답자 - 친한 친구	가까운	화자 = 청자
상황2	응답자 - 낯선 사람	매우 먼	화자 < 청자
상황3	낯선 사람 - 응답자	매우 먼	화자 > 청자
상황4	엄마 - 응답자	매우 가까운	화자 > 청자
상황5	응답자 - 반 친구	먼	화자 = 청자
상황6	응답자 - 이웃사람	먼	화자 < 청자
상황7	응답자 - 이성친구	가까운	화자 = 청자

* 응답자는 설문에 응한 중학생들을 말함.

〈표 16〉 상황1의 주 행위 전략

상황1	명령문	수행동사	의무진술	소망진술	제안성문형	예비조건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43.3%	0%	0%	0%	0%	43.3%	3.3%	10%	100%
2학년	23%	0%	0%	1.6%	0%	72.1%	0%	3.3%	100%
3학년	22.7%	0%	0%	4.5%	0%	70.5%	0%	2.3%	100%
전체	27.4%	0%	0%	2.2%	0%	65.2%	0.7%	4.4%	100%

상황1은 응답자가 친한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리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은 예비조건언급(65.2%) > 명령문(27.4%) > 소망진술(2.2%) > 암시(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요청발화에는 특히 ‘Would you borrow your bike?’ , ‘Can I lend your bike?’ , ‘Can you

borrow me your bike?’ 와 같이 ‘borrow’ 와 ‘lend’ 의 사용법을 혼동하여 나타나는 오류들이 많았다. 학생들은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두 동사의 쓰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화행을 지도할 때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borrow’ 와 ‘lend’ 의 쓰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표 17> 상황2의 주 행위 전략

상황2	명령문	수행동사	의무진술	소망진술	제안성문형	예비조건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50%	0%	0%	0%	0%	43.3%	0%	6.7%	100%
2학년	39.3%	1.6%	0%	0%	0%	55.7%	0%	3.3%	100%
3학년	47.7%	2.3%	0%	0%	0%	50%	0%	0%	100%
전체	44.4%	1.5%	0%	0%	0%	51.1%	0%	3%	100%

상황2는 응답자가 어른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의 분포는 예비조건언급(51.1%) > 명령문(44.4%) > 수행동사(1.5%)의 순으로 나타났다. ‘Can/Will you open the door?’ , ‘Could/Would you open the door?’ 와 같은 예비조건언급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단순히 명령형의 형태에 ‘please’ 를 붙이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Open the door, please.’ 와 같이 말하는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표 18> 상황3의 주 행위 전략

상황3	명령문	수행 동사	의무 진술	소망 진술	제안성 문형	예비 조건 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36.7%	0%	0%	3.3%	0%	40%	0%	20%	100%
2학년	24.6%	0%	0%	8.2%	3.3%	59%	1.6%	3.3%	100%
3학년	13.6%	0%	0%	6.8%	0%	68.2%	6.8%	4.5%	100%
전체	23.7%	0%	0%	6.7%	1.5%	57.8%	3%	7.4%	100%

상황3은 아주머니가 응답자에게 신문을 빌리는 상황이다. 이때 아주머니가 응답자에게 어떻게 요청하는 말을 할지를 예상하여 적도록 했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아주머니가 자신들에게 했을 요청의 주 행위 전략은 예비조건언급(57.8%) > 명령문(23.7%) > 소망진술(6.7%) > 암시(3.0%) > 제안성문형(1.5%)의 순으로 나타났다. ‘Can I read your newspaper?’ 와 같은 예비조건언급이 가장 선호되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May you borrow the newspaper?’ , ‘Will you borrow me the newspaper?’ 와 같은 오류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아 상황 1과 마찬가지로 ‘borrow’ 와 ‘lend’ 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혼동을 보이고 있었다.

〈표 19〉 상황4의 주 행위 전략

상황4	명령문	수행 동사	의무 진술	소망 진술	제안성 문형	예비조건 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70.0%	0%	20%	0%	3.3%	0%	3.3%	3.3%	100%
2학년	42.6%	0%	41%	0%	0%	3.3%	4.9%	8.2%	100%
3학년	38.6%	0%	27.3%	2.3%	9.1%	4.5%	11.4%	6.8%	100%
전체	47.4%	0%	31.9%	0.7%	3.7%	3%	6.7%	6.7%	100%

상황4는 엄마가 응답자에게 숙제하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때 엄마가 응답자에게 어떻게 요청하는 말을 할지를 예상하여 적도록 했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엄마가 자신에게 했을 요청의 주 행위 전략은 명령문(47.4%) > 의무진술(31.9%) > 암시(6.7%) > 제안성문형(3.7%) > 예비조건언급(3.0%) > 소망진술(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가 매우 가깝고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대에게 하는 요청상황인 만큼 ‘Do your homework first.’와 같은 명령문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You have to/ had better/ should do your homework first.’와 같이 ‘~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무진술이 많았다.

〈표 20〉 상황5의 주 행위 전략

상황5	명령문	수행 동사	의무 진술	소망 진술	제안성 문형	예비조건 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56.7%	3.3%	0%	3.3%	0%	26.7%	3.3%	6.7%	100%
2학년	27.9%	0%	0%	1.6%	0%	62.3%	0%	8.2%	100%
3학년	18.2%	2.3%	0%	2.3%	0%	65.9%	2.3%	9.1%	100%
전체	31.1%	1.5%	0%	2.2%	0%	55.6%	1.5%	8.1%	100%

상황5는 응답자가 친하지 않은 같은반 친구에게 자신이 영어로 쓴 편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은 예비조건 언급(55.6%) > 명령문(31.1%) > 소망진술(2.2%) > 수행동사(1.5%) > 암시(1.5%)의 순으로 나타났다. ‘Can you check this letter?’, ‘Could you help me to check this letter?’ 등의 예비조건언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Check it, please.’ 와 같은 명령문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 상황6의 주 행위 전략

상황6	명령문	수행 동사	의무 진술	소망 진술	제안성 문형	예비조건 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53.3%	0%	0%	0%	0%	36.7%	3.3%	6.7%	100%
2학년	27.9%	0%	0%	1.6%	1.6%	59%	0%	9.8%	100%
3학년	15.9%	2.3%	0%	9.1%	2.3%	63.6%	0%	6.8%	100%
전체	29.6%	0.7%	0%	3.7%	1.5%	55.6%	0.7%	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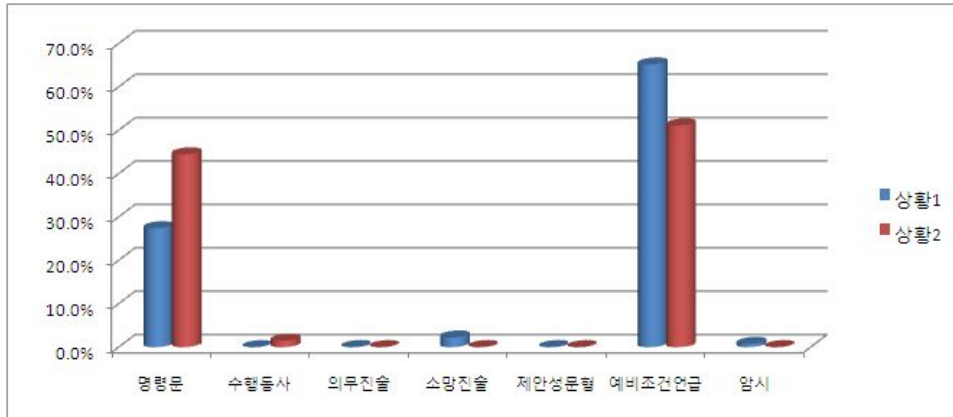
상황6은 응답자가 이웃집아저씨에게 짐 들어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은 예비조건언급(55.6%) > 명령문(29.6%) > 소망진술(3.7%) > 제안성문형(1.5%) > 수행동사(0.7%), 암시(0.7%)의 순으로 나타났다. ‘Can you help me?’ , ‘Could you carry these bags together?’ 와 같은 형태의 예비조건언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Help me, please.’ , ‘Carry some heavy bags, please.’ 와 같이 명령문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표 22> 상황7의 주 행위 전략

상황7	명령문	수행동사	의무진술	소망진술	제안성문형	예비조건언급	암시	기타	계
1학년	6.7%	0%	3.3%	10%	30%	23.3%	16.7%	10%	100%
2학년	6.6%	0%	3.3%	8.2%	36.1%	23%	13.1%	9.8%	100%
3학년	6.8%	0%	0%	9.1%	40.9%	20.5%	9.1%	13.6%	100%
전체	6.7%	0%	2.2%	8.9%	36.3%	22.2%	12.6%	11.1%	100%

상황7은 응답자가 이성 친구에게 저녁식사하자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은 제안성문형(36.3%) > 예비조건언급(22.2%) > 암시(12.6%) > 소망진술(8.9%) > 명령문(6.7%) > 의무진술(2.2%)의 순으로 나타났다. ‘Let ' s have dinner tomorrow.’ ‘Why don't we go to the restaurant tomorrow evening?’ 와 같이 ‘~ 하자.’ 라는 제안형의 요청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전략이었다. 그 다음으로 ‘Can/Will you have dinner with me?’ , ‘Would you have dinner with me?’ 등의 예비조건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그림 13] 상황1과 상황2



상황1은 사회적 거리가 가깝고 사회적 지위가 같은 친한 친구에게 하는 요청이다. 반면에 상황2는 사회적 거리가 매우 멀고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은 상대에게 하는 요청이다. 위의 [그림 13]에서 나타나듯이, 명령문에서 나타나는 상황1의 분포는 27.4%이고 상황2의 분포는 44.4%이다. 학생들은 상황1에서의 가까운 친구보다 상황2에서의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낯선 상대에게 오히려 명령문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학생들이 영어에서는 발화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 공손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낯선 상대에게 공손하지 못한 표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명령문의 분포가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한국어 요청이 ‘문 좀 열어주세요.’ 등과 같은 공손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요청에서는 공손함을 담아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게 발화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영어 요청답안의 대부분이 한국어 요청 답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문 좀 열어주세요.’ 는 영어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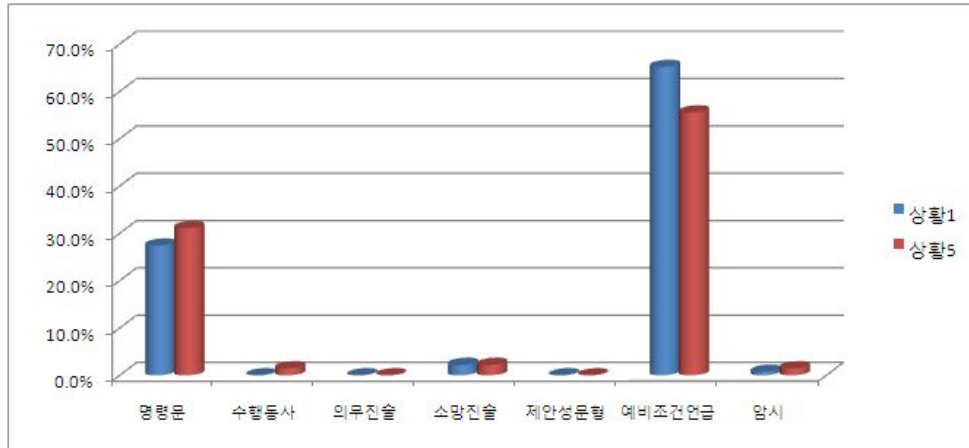
으로 나타날 때 그대로 직역하여 ‘Open the door, please.’ 라고 명령문으로 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명령문의 분포가 높게 나온 이유는 단순히 명령형의 형태에 please를 붙이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Open the door, please.’ 와 같이 말하는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조건언급에서는 상황1이 65.2%, 상황2가 51.1%로 상황1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상황1에서는 ‘Could~?’ 를 사용하고선 상황2에서 ‘Can~?’ 을 사용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매우 멀고 사회적 지위는 자신보다 높은 상대에게 ‘Can~?’ 을 사용하고선 사회적 거리가 가깝고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친한 친구에게는 ‘Could~?’ 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이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영어 표현을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예비조건언급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Can/Could~?’ 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화용적지식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현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요청을 할 때에 ‘Can/Could~?’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단순한 암기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14] 상황1과 상황5



상황1은 응답자가 친한 친구에게, 상황5는 응답자가 친하지 않은 반친구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두 상황은 응답자에게 있어서 청자가 사회적 지위는 같으면서 사회적 거리는 다르게 설정되어있다. 이 두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명령문은 응답자와 화자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상황1(27.4%)보다 사회적 거리가 먼 상황5(31.1%)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예비조건언급은 상황1(65.2%)이 상황5(5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영어 모국어화자들은 간접성의 정도가 클수록 공손한 표현으로 보아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보다 더 간접적인 요청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중학생들은 가까운 상대에게는 명령문과 같은 직접 요청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적 거리가 먼 상대에게 직접 요청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또한 중학생들이 영어 공손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표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말로 쓴 요청표현을 살펴보면 상황1에서는 거의 ‘자전거 좀 빌려줘.’ 혹은 ‘자전거 좀 빌려줄래?’로 나타났다. 상황5에서는 ‘내 편지 좀 봐줘.’ 혹은

‘내 편지 좀 봐줄래?’가 대부분의 답변이었다. 즉, 사회적 거리가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서 요청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의 한국어 요청 답안은 영어 요청답안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말 ‘~해줘.’의 형태는 영어로는 명령형의 형태로 나타나 명령문이 되고 ‘~해줄래?’의 형태는 영어로 ‘Can/will you~?’의 형태로 나타나 예 비조건언급이 되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들의 공손성의 정도는 각각 직접요청과 간접요청으로 나뉘어 공손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학생들이 가까운 상대에게는 직접 요청을 덜 사용하고 사회적 거리가 먼 상대에게 직접 요청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 보다는, 이들이 한국말로 요청하는 방식을 그대로 영어로 적용시켜 발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중학생들이 상대에 따라 요청의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는 공손성이 들어있는 말을 사용하여 요청을 사용하고 영어는 말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초급수준의 학습자들이 어떠한 영어요청화행을 구현하는지를 이들의 요청화행전략을 중심으로 밝혀내고 그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영어 교육의 목적인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의 이해와 교류에 맞게 사회·언어학적 지식을 잘 학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요청화행에 있어 그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통해 그들이 흔히 범하는 화용론적 오류들을 알 수 있다면 향후 화용적 지도 방안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영어 공손성에 대한 인지정도를 조사해보고 담화 완성형 시험을 통해 7가지 상황에 그들의 요청화행을 적도록 하여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가 제시한 주 행위 요청전략, 보조수단의 전략 그리고 관점의 틀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자인 중학생들의 요청화행전략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손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66.7%의 학생들이 영어에 공손표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학년별로 공손표현의 인지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공손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둘째, 요청의 주 행위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은 예비조건언급, 명령문, 제안성 문형, 의무진술, 암시, 소망진술, 수행동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예비조건언급의 전략의 빈도가 더 높아지고 명령문의 전략의 빈도는 더 낮아졌다.

주 행위 전략을 3단계 전략 유형으로 구분하면 간접 요청전략이 50.4%, 직접 요청전략이 39%,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이 3.6%로 나타났다. Blum-Kulka and House(1989)가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와 지위를 고려한 상황에서의 요청 전략을 분석하였을 때를 살펴보면, 전체 상황에 따른 평균 요청 전략 분포는 간접 요청전략이 82.4%, 직접 요청전략이 9.8%,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전략이 7.8%였다.

중학생들과 위의 영어 모국어 화자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영어 모국어 화자의 간접 요청전략이 82.4%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중학생들의 간접 요청 전략은 50.4%였고 영어 모국어 화자의 직접 요청전략이 9.8%에 불과한 반면에 중학생들의 직접 요청전략은 39%에 달하고 있어 그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 행위전략의 분포는 간접 요청전략이 71.4%, 직접 요청전략이 18.7%,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 전략이 3.3%로 나타났다. 전체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과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주 행위 전략을 비교하였을 때, 간접 요청전략은 50.4%에서 71%로 높아지고 직접 요청전략은 39%에서 18.7%로 낮아짐으로써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요청의 보조수단을 분석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요청 화행 중 16.1%의 응답에서 보조수단이 나타났으며 영어권국가에서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26.4%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학생들의 보조수단이 16.1%에 그친 것은 아직 중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학습을 해나가는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조수단을 구사하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보조수단의 전략의 분포는 속박, 근거, 사과, 보상약속, 예비, 위협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제, 부담완화, 모욕, 도의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화장치는 위협이 2회 나타나는 것뿐이었고 보조수단의 대부분의 경우가 완화장

치로 나타났다. 상황별 분석에서 중학생들은 동등한 입장이면서 가까운 상대에게 더 쉽게 보조수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조수단의 분석에서 나타난 중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수단의 전략 중 ‘사과’이다. ‘사과’는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가 제시한 요청의 전략에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요청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전체 학생들의 관점의 분포는 청자중심, 화자중심, 화자와 청자중심, 비인칭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자중심이 72.6%를 보이며 요청의 관점이 다른 관점들에 비해서 청자중심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며 그에 반해 화자중심은 16.3%를 보이며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관점은 전체 학생들의 관점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화자중심의 경향은 높아지고, 반면에 청자중심의 경향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상황에 따른 요청을 분석하였다. 제시된 7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요청의 주 행위전략이 각 상황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상황 1과 상황2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예비조건언급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Can/Could~?’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1과 상황2의 비교를 통해서 학생들은 상황1에서의 가까운 친구보다 상황2에서의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낯선 상대에게 오히려 명령문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상황1과 상황5의 비교를 통해서 중학생들이 가까운 상대에게는 명령문과 같은 직접 요청을 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적 거리가 먼 상대에게 직접 요청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중학생들이 요청의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는 공손성이 들어있는 말을 사용하여 요청을 사용하고 영어는 말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연구의 대상이 된 중학생들은 요청하는데 있어서 완벽하진 않아도 요청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 행위 전략 분포의 선호도에 있어서 영어모국어 화자와 비슷했던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비조건 언급의 전략의 분포가 가장 높긴 했어도 ‘Can/Could’ 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였고 영어 모국어 화자에 비해 분포의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써 언어적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화용적 지식은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학생들은 영어 모국어 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요청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관점의 선택에 있어서 청자중심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규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모국어의 간접 현상으로 인해 오류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의 요청화행이 가지는 직접적인 전략과 청자중심의 성향은 중학생들의 요청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의 언어체계가 전이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 해줘.’, ‘~ 해주세요.’의 영향을 받아 명령문의 형태가 나타나고 ‘~좀’의 영향으로 ‘please’가 나타나서 명령문과 ‘please’가 결합한 형태가 공손한 표현으로써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직접 요청의 빈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학생들의 요청화행이 모국어의 전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보조수단의 분석에서 ‘사과’ 전략이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화행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학생들이 요청화행에서 보이는 현상들을 잘 알고 그에 적절한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국어의 전이는 간섭현상이 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오류를 출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습 지도자와 학습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결론을 반영하여 향후 현 중학생들의 영어 화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어의 공손표현과 한국어의 공손표현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가 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에게 명령문에 ‘please’ 를 붙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영어 공손표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단순히 공손하지 못한 표현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한국어 요청표현이 공손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은 명령문에 ‘please’ 를 붙인 형태를 공손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요청을 할 때는 ‘~시’ 와 같은 어조사나 ‘~좀’ 과 같은 말을 덧붙여서 공손한 표현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영어로 요청을 할 때는 표현의 간접성이 높을수록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요청의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학생들의 요청의 관점은 청자중심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청자중심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청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 이는 상대에게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게 요청표현의 암기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대할 수 있는 다양한 상대에 따라 적절한 요청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Can/Could’ 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lend’ 와 ‘borrow’ 의

사용에 있어 혼동을 보이는 것은 아직 이에 대해 제대로 학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손인식의 조사에서 공손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학생들도 실제 요청발화에 들어가서는 상황에 적절하게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막연히 알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그들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발화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해당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해당 단어의 암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실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의미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수업과 영어교재의 편찬에 반영하여 중학생들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준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영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들은 중학생들이 언어를 습득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국어로 부터의 간섭현상으로 인한 오류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절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점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환경 속에서 많은 예들을 통해 다양한 영어요청표현들을 직접 발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중학생들의 화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대화자간의 오해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8). *중학교 교육과정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수민. (2007).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 표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유리. (2006). *영어 요청화행과 반응 분석: 중3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향이. (2006). *요청화행의 공손성 습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정병권. (2001). *한국인 영어 사용자의 요청 화행에 나타난 공손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정성현. (2006). *한국 고등학생들의 요청 실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Austin, John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um-Kulka, Shoshana. (1989). *Playing it Safe : The Role of Conventionality in Indirectness*. In Blum-Kulka, Shoshana., Juliane, House., and Gabriel, Kasper. (Eds.)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Blum-Kulka, Shoshana. and Juliane, House. (1989). *Cross-Cultural and Situational Variation in Requesting*

Behavior. In Blum-Kulka, Shoshana., Juliane, House., and Gabriel, Kasper. (Eds.)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Blum-Kulka, Shoshana., Juliane, House. and Gabriel, Kasper. (Eds.)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Brown, H. Douglas.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Inc.

Canale, Michael. (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Richards & Schmidt. (1983)

Hymes, Dell.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 Holmes. (1972).

Ko, In-soo. (1995). *A cross-cultural study of requests in English and Korean*. Ph. D.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ch, G.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y, Jacob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2nd ed.). Oxford: Blackwell Publishers.

Searle, John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rle, John 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pp. 59-82). New York: Academic Press.

Thomas, Jenny. (1996). *Meaning in Interaction: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London: Longman.

Wolfson, N. (1983). *An empirically based analysis of compliments*. In N. Wolfson & E. Judd (Eds),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y House.

ABSTRACT

An Analysis of English Requests by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Yang Hyo Ju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alization patterns of requesting behaviors in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d also, this study describ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equest realization between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d native speakers of English. For this, 135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who study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ok a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 It was designed to elicit their requesting behaviors in everyday situations. The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strategies of the head acts, supportive moves and perspectives, which was presented by Blum-Kulka, House and Kasper(1989). And the observed requesting behavior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compared with the strategie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used the strategies of the head acts in a similar way to native speakers of English. But they tended to prefer more direct strategies than those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t was revealed that they frequently used 'please' attaching to imperative sentences as a polite expression.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istribution of direct requests was so high compared with those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t is considered that it is due to the fact that Koreans tend to realize their requests using honorific words rather than pragmatic means. Also, they didn't distinguish the usage of 'Can~?' and 'Could~?' in a proper way according to the relations of the speaker and the hearer. And in supportive moves they took on a new phase in comparison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tending to use the strategies of apology remarkably.

In perspectives they mainly preferred hearer-oriented requests while native speakers of English contrastively preferred speaker-oriented requests. It seemed that it was caused by the fact that they didn't catch the difference between speaker-oriented requests and hearer-oriented requests in English requests. And the preferences in choice of perspectives indicate linguistic differences on the two

languages as well.

Upon the findings, 66.7%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nswered that they know the politeness of English but there were some pragmatic errors in the request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So It is suggested that teachers understand the their tendency of the realization patterns of requesting behaviors and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be aware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the request realization to develop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ragmatic competence in English.

부 록

1. 설문지

설문지

※ 연구의 목적상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빠짐없이 꼭 기입해 주십시오,
오,

1. () 중학교 () 학년 () 반 이름 : ()
2. 성별 : 남(), 여()
3.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경험이 있다면 기간을 적어주세요. 기간: ()년 ()달
4. 당신의 학교 영어성적은? 0~10점() 11~20점() 21~30점()
31~40() 41~50점() 51~60점() 61~70점() 71~80점()
81~90점() 91~100점()
5. 영어에 공손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 한 후, 주어진 상황에 가장 알맞게 요청하는 대화말을 써넣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 실제로 직접 말하듯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밑줄 친 부분에 성실하게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각 문항마다 한국말과 영어로 제시된 상황은 같습니다. 한국말 빈칸에는 한국말로, 영어 빈칸에는 영어로 기입해주세요.

Situation 1(상황1)

당신은 기차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_____

You are late for a train. So you ask your close friend to lend you his bike. You ask him. You say to your close friend: _____

Situation 2(상황2)

당신은 많은 물건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서 문을 열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 근처에는 어떤 성인 남자가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_____

You are carrying a lot of things. You can't open the door yourself. There's a man standing near the door. You ask him. You say to him: _____

Situation 3(상황3)

당신이 버스 안에서 신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때 옆 좌석에 앉은 40대 아주머니는 그 신문이 읽고 싶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_____

You are on a bus. You have finished reading your newspaper. The woman(40's) next to you wants to have a look at it. What does she ask you? **He/She** says: _____

Situation 4(상황4)

당신은 인터넷을 하는 중입니다. 당신의 엄마는 당신에게 숙제먼저 하라고 말하려 합니다. 엄마는 당신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_____

You are searching the internet. Your mom asks you to do your homework first. **She** says: _____

Situation 5(상황5)

당신은 영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친하지 않은 반 친구에게 그것을 점검해 주기를 요청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_____

You've written a letter in English. Before you send it, you want your not-so-close classmate to check it. What do you ask him/her? **You** say: _____

Situation 6(상황6)

당신은 짐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던 이웃집 아저씨에게 짐을 같이 들어주실 수 있는지 요청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_____

While you are carrying some heavy bags to your house, you see a man you know who lives close by. You need help carrying the bags. How should you ask him? **You** say: _____

Situation 7(상황7)

당신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전화로 만날 약속을 정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내일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_____

You are calling a boy/girl friend you are interested in to invite him/her to dinner at a restaurant tomorrow. What should you say? **You** say: _____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